이재용 부회장이 설 연휴인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의 삼성전자 법인을 찾아 현지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삼성전자

# 연휴에도 글로벌 행보 JY, 브라질 현장 방문

**마나우스 법인 찾아 임직원 격려**
**상파울루 등서 현지 사업 구상**
**"이국 현장의 땀은 미래 자양분"**

이재용 부회장이 설 연휴에도 해외 현장을 찾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법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현지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명절에도 근무를 이어가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에서 나온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100년 삼성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자"며 "오늘 먼 이국의 현장에서 흘리는 땀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서 다음날에도 브라질 상파울루 법인과 캄피나스 공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브라질 현지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삼성전자

# "삼성SDS 브랜드 가치 4조3000억"

**英 브랜드파이낸스 평가**
글로벌 IT기업 평가서 한 단계 상승
5G 등 사업경쟁력 인정, 11위 랭크

삼성SDS는 브랜드파이낸스가 실시한 IT서비스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국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업체인 브랜드파이낸스는 삼성SDS의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7% 상승한 37억달러(4조3000억원)를 기록해 25대 글로벌 IT서비스 기업에서 순위가 상승한 2개 기업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브랜드파이낸스는 보고서에 별도 지면을 할애해 삼성SDS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IT서비스 시장의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률 ▲AI·IoT·블록체인, 5G, 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 기반의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적 투자·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4대 전략사업(인텔리전트팩토리, 클라우드, AI·분석, 솔루션) 성장 등을 브랜드 가치가 급성장한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 임수현 최고전략책임자(부사장)는 브랜드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현 시장 상황에서 IT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삼성SDS를 블록체인 확산을 리딩하는 글로벌50 기업으로 선정했고, 삼성SDS가 수행한 제조기업 디지털 혁신 사례는 CIO 100 어워즈를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삼성SDS는 올해 경영방침을 '글로벌 사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로 정한 만큼, 글로벌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략 사업을 정조준하고 신규 고객과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외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최태원 회장 '사회적 가치' 전파 스티글리츠 "ESG 첫 측정" 극찬

〈노벨경제학 수상 교수〉

**다보스포럼서 글로벌 공감대**
**최태원 세계 인사들과 토론**
**"사회가치 측정해 성과" 제안**

최태원 SK회장(왼쪽 첫번째)이 다보스포럼 공식세션에서 토론하고 있다. 로라 차 홍콩증권거래소회장(가운데), 코쿠부 후미야 일본 마루베니 회장.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전파했다.

2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공식 초청을 통해 '아시아 시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세션 패널로 참가했다.

최 회장은 다보스 포럼 공식 세션에 2013년 이후 두번째로 초청받았다. 고노 켄지 NHK 미주 총국장 사회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아시아 금융 전문가 로라 차 홍콩증권거래소 회장, 코쿠부 후미야 마루베니 회장 등과 함께 패널석에 자리를 잡았다. 양극화와 불평등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업이 주주와 이해관계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도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SK그룹을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특히 SK가 환경이나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측정하는 평가 제도를 만들고 적용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 점도 여러차례 언급하며, 미국 기업들도 주주이익 극대화 추구에서 벗어나야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규모(GDP) 극대화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안위와 복지를 최대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기업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을 고도화해 이해관계자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자"며 "기업 경영의 목표와 시스템을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 바꾸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듯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성과를 키워가야 한다"면서 "특히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기법을 확보해야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3년에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사회문제 개선과 참여를 유도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뒤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도 이런 노력 일환이다. SK에 따르면 시행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은 매출액 증가보다 사회적 가치를 20%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더블 보텀 라인(DBL) 경영도 도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등 기업 경영 본질을 개혁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 세계 4대회계법인과 기업들과 구성한 'VBA'가 바로 그것이다.

최 회장은 "SK 구성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가치 추구에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의 범위와 크기가 확장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난제도 많다"고 평가하며 "사회적 가치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측정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빅 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하면 고객 개개인이 중시하는 사회문제를 더욱 세밀히 파악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도 투자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교하게 측정, 평가하는 방식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SK는 패널 토론 외에도 21일부터 24일까지 다보스 시내에 SK라운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을 알렸다. SK가 다보스에서 별도 홍보 라운지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찬규 SK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장(부사장)은 "세계적 석학과 글로벌 리더들이 SK식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SK의 노력에 글로벌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 가치 극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SK이노, 지속가능 배터리생태계 조성 동참

**김준 사장 "친환경사업 집중 육성"**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가입한 '세계 배터리 동맹(GBA)'이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10대 원칙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4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배터리 생산성 극대화 및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생태계 발전을 위해 10대 원칙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BA는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배터리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키우고 동시에 환경 및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글로벌 연합체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참석했다. /SK이노베이션

GBA는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2020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10가지 지향점을 정하고 다수 회원사들의 참여와 함께 이를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GBA가 제시한 원칙들이 자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린밸런스 2030을 통한 성장, 즉 친환경 중심의 사업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배터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기여라는 배터리 사업 추구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고 참여키로 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GBA 발표자료를 통해 "GBA가 203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벨류체인을 만들기 위한 지향점과 10가지 원칙을 존중한다"며 "이같은 비젼과 시간적인 목표가 SK이노베이션이 친환경 사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그린 밸런스 2030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